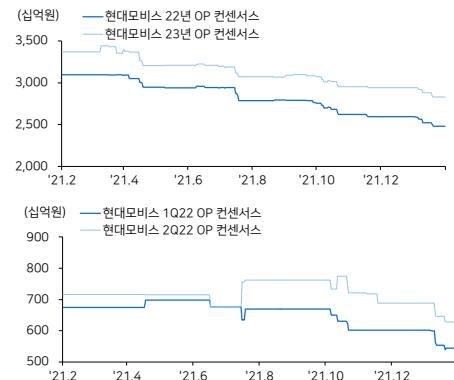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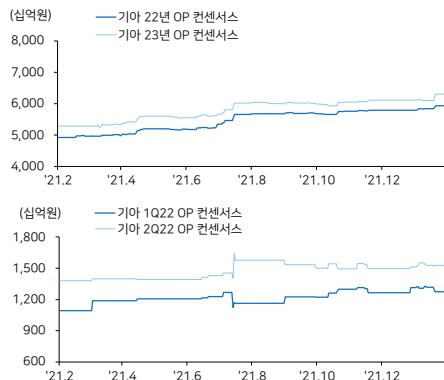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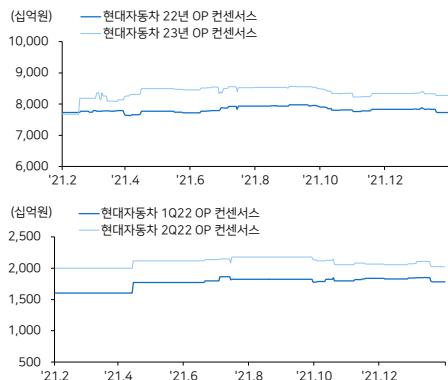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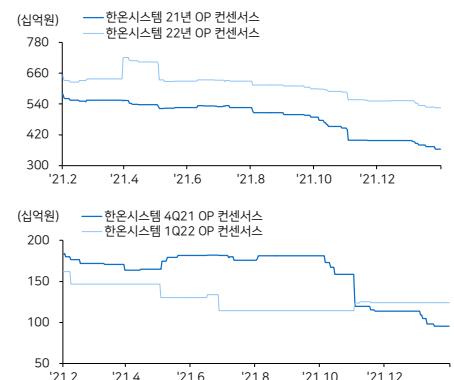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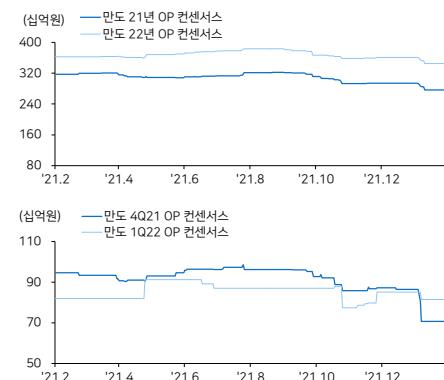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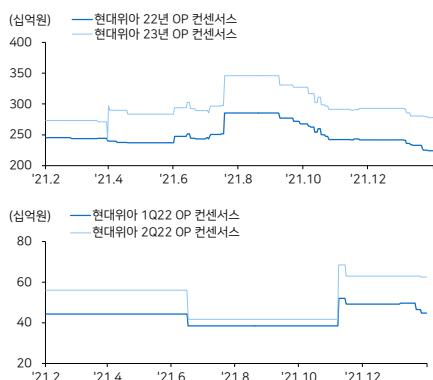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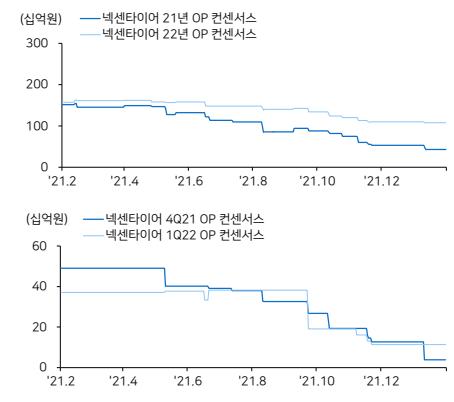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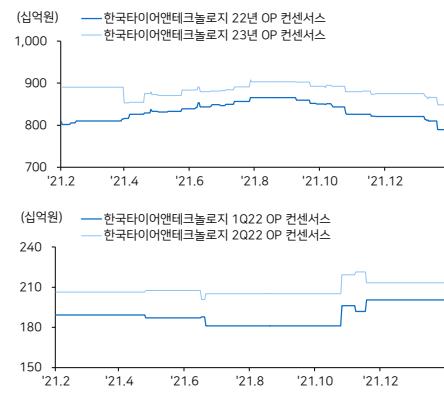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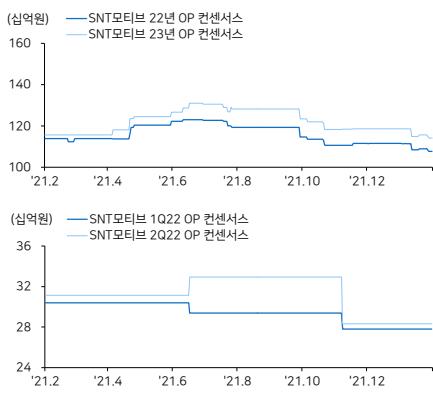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배터리 가격 상승세, 전기차 보급 확대 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

리튬/코발트 등 전기차 핵심원자재 가격이 오랜 기간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 전기차 가격 하락에 제동이 걸렸다고 WSJ가 보도함. 업계는 '24년 내연기관차와의 Price Parity'를 예상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에 제동이 걸림.

<https://bit.ly/3rutPg4>

현대차 GBC, 미래도시 'UAM' 거점화 (e대한경제)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GBC 사업부가 본격 설계안이 공개됨. 50층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상층부 UAM 이착륙장 15곳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오는 4월 기본설계안 확정 후 UAM 상용화 시점인 '28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중.

<https://bit.ly/3osxyc6>

Ford, GM pull ahead their EV plans as profits grow (Automotive News)

GM은 '22년 글로벌 매출이 25~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당부분 하반기 반영될 것으로 예상함. 포드는 '22년 판매량이 10~15% 증가할 것으로 예상. GM과 포드는 '25년까지 각각 전기차/자율주행 기술에 3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계획.

<https://bit.ly/3GrGtRf>

Volkswagen does not see chip shortage ending this year (Reuters)

업계 매거진 Automobilwoche에 따르면, VW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수급부족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하반기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명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https://reut.rs/3gqFPc2>

현대차, 13년만에 일본 시장 재진출...전기차 100% 온라인 판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재진출하면서 전기차동차만 100% 온라인으로 판매키로 했다. 기존 딜러망이 없는 만큼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됨.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공략할 예정.

<https://bit.ly/3J15p3I>

BMW CEO warns against premature phaseout of combustion engines (Teslarati)

BMW CEO 올리버 카세는 너무 빠른 전기차로의 전환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독일과 유럽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전환은 내연기관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며 기후나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https://bit.ly/3snwE11>

Ford to suspend or cut output at 8 of its factories due to chip shortage (Reuters)

포드가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인해 이번 주 내내 미국, 멕시코, 캐나다 8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포드는 지난 금요일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하반기 불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힘.

<https://reut.rs/3goGGKs>

Northvolt & Volvo to build battery plant in Gothenburg (electricive)

볼보와 노스볼트는 '23년부터 스웨덴에 건설될 배터리셀 공장 위치를 발표, '25년 가동 예정. 최대 연간 50Gwh capa로 예상되며, 정확한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발표한 29억 유로의 일부로 추정됨.

<https://bit.ly/35M4iX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